ESG SPOTLIGHT

Daishin 경제연구소

2026.11.

Vol.26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2026년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탄소시장, 중대재해, 중복상장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함께,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11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01 ESG Keyword 【 탄소시장 · 중대재해 · 중복상장 】

02 ESG Trend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수립 】

03 ESG Policy 【 2026년 11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

04 ESG Event 【 대신경제연구소 「ESG 공시 리스크를 넘어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세미나」 개최 ('26.11.10) 】

Environmental Issue : 탄소시장

ESG Keyword

EU CBAM 탄소가격 82.32유로로 9% 급등 (임팩트온, '26.10.0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51

EU 집행위원회가 5일 공시한 3분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이 톤당 82.32유로(약 12만4000원)로, 1분기(75.36유로)와 2분기(75.28유로)보다 9% 넘게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으로 분기마다 정해지며, 제도는 올해 1월 확정 시행됐지만 수입업자의 실제 인증서 매입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유럽 수입업자들이 인증서 구매 비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한국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수출기업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7년부터 가격 공시 주기가 매주 단위로 바뀌면서 배출권 가격 등락이 납품 단가와 견적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거래소,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 위해 글로벌 평가사와 맞손 (머니투데이, '26.10.14.)

https://www.mt.co.kr/stock/2026/10/14/2026101413482251934

한국거래소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탄소크레딧 평가기관 BeZero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기획예산처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 지원을 받아 'KRX탄소크레딧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거래소는 탄소크레딧 상장심사 역량을 높이고, BeZero 등 평가기관의 평가등급과 평가보고서를 자체 기준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고품질 탄소크레딧 발굴을 위한 예비평가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무결성이 높은 탄소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 KRX탄소크레딧 시장이 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탄소배출권 거래량 10억t 돌파, 2027년 유화분야로 확대 (뉴스핌, '26.10.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2000038

중국 생태환경부는 2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누적 거래량이 10억t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1년 출범한 시장은 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으며, 관리 대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3억t으로 중국 전체 배출량의 65% 이상이다. 배출권 가격은 20일 종가 기준 t당 98.11위안으로 출범 당시의 두 배를 넘었고, 2021~2025년 1100여 개 주요 배출기업이 감축으로 거둔 수익은 약 360억위안(약 7조원)에 달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석유화학·화학 업종을 시장에 편입하고 유상할당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SG Keyword

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기소·재판 중 사건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26.10.07.)

https://www.mt.co.kr/economy/2026/10/07/2026100710520224940

고용노동부는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7일 누리집에 추가 공개(☞ 바로가기)했다. 앞서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2024년 사건 보고서 51건은 4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5만 회를 넘어서는 등 현장의 재해 예방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원인과 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담을 예정이다.

한화·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노동부 국정감사 도마위 (안전신문, ’26.10.14.)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05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도마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계열사에서만 19건의 사고로 23명이 숨졌으며, 올해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은 7년간 방위사업청 점검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지난해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신안산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장인화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종합대책 보고를 약속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경향신문, ’26.10.1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52142005/#ENT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에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39명 중 35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유일한 실형은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3년이다.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누적 기준으로도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77명(90.6%)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3명(3.5%)에 불과했다.

대법 "안전관리 맡겼다고 면책 안 돼"… 23명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국일보, ’26.10.2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011000004246

대법원 1부는 20일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뒀더라도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표가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리셀은 위험성평가에 리튬전지의 폭발·화재 위험을 반영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족과의 합의 등이 반영돼 4년으로 감형됐다.

※ 아리셀 참사 사건 개요는 2025년 10월호 대신경제연구소 뉴스레터 [ESG SPOTLIGHT] vol.13 ESG Legal Case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재판결과’ 참고

Governance Issue : 중복상장

ESG Keyword

※ 금융위의 중복상장 제도 원칙은 2026년 5월호 대신경제연구소 뉴스레터 [ESG SPOTLIGHT] vol.20 참고

코스피 입성 '케이뱅크' 딱 한곳..."대어 멸종" 중복상장 묶자 IPO '꽁꽁' (머니투데이, '26.10.12.)

https://www.mt.co.kr/stock/2026/10/12/2026101115393416827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돼 상장을 전제로 투자한 사모펀드(PEF)의 자금 회수도 막혔다. 올해 10월 8일까지 스팩을 제외한 신규 상장사는 34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0% 줄었고, 공모금액은 1조 6,546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증권가는 대기업 계열사 상장이 막힌 탓에 올해 코스피에 입성한 대형 종목이 케이뱅크 한 곳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LS그룹은 지난 1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해 설비투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SK에코플랜트는 투자자와 약정한 상장 시한을 넘겨 프리IPO로 조달한 1조원을 상환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우려와 함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중복상장 비율, 미국의 200배… '증시 저평가' 초래 (국민일보, '26.10.22.)

https://www.kmib.co.kr/article/20261021502274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주요국을 크게 웃돌면서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일본(4.0%)의 2.8배, 미국(0.05%)의 224배에 달했다. 이처럼 중복상장이 많은 배경으로는 지배주주가 지분율을 유지한 채 증자 없이 자회사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출자구조가 꼽힌다. 문제는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일본은 2021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해 상장 자회사에 독립이사 과반 선임 등을 요구하면서 상장 자회사 수가 약 31% 줄었다.

SK하이닉스, 주주 반발에 결국 접었다…'손자회사'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 (매일경제, '26.10.23.)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83760

SK하이닉스가 중복상장 논란을 빚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IPO와 IPO(기업공개) 검토를 중단했다. 회사 측은 23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IPO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장 시 SK하이닉스의 간접 지분율이 낮아져 기존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복상장 규율 대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강조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미국 생산시설 확충은 과제로 남아, SK하이닉스는 투자 시기와 재원조달 방식 등을 검토해 솔리다임 성장과 주주 이익을 함께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참고]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 주요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6.07.06.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해외 증시 상장 자회사도 적용)
'26.08.05.	솔리다임 프리IPO·나스닥 상장 추진설 첫 보도, SK하이닉스 '미확정' 해명 공시
'26.10.08.	블룸버그, 솔리다임 美 IPO 대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선정 보도
'26.10.19.	금융감독원장, 국정감사서 "솔리다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 언급
'26.10.22.	금융위원장, 국정감사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답변
'26.10.23.	**SK하이닉스, 솔리다임 프리IPO 및 IPO 검토 중단 공시**

[자료] 국내 언론 보도 종합, 대신경제연구소 작성

ESG Trend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수립('26.10.07.)[1]

I. 개요

1. 주요 내용

- 10월 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녹색전환(GX)을 탄소감축 수단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으로 격상한 '26~'35년 10개년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GX 분야에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α 등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은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

2. 추진 배경

- **(기후·에너지 리스크)** 기후위기 방치 시 210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0.3%p 하락('25년, 한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24년, 93.7%)가 높아 중동위기 등 공급망 충격에 취약함
- **(첨단산업 경쟁·탄소무역장벽 극복)** CBAM 본격 시행('26.1월)으로 철강업계 CBAM 인증비용이 '26년 851억원에서 '34년 5,58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대한상의)이며, 무역의존도('24년, 90.9%)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는 필수임. 녹색제조·탈탄소화 등 GX 시장은 '24년 2조달러에서 '40년 11조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BCG), 기술·공급망을 먼저 확보하는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여건)** 제조업 비중이 27.2%인 탄소 다배출 산업 중심 구조이며, 전통 제조업과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기존 정책 지원은 규제대응 중심의 소규모·병렬식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음

3. 추진 방향

- **(비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시 실현', **(목표)** 잠재성장률 제고, GX 수출 동력화, 녹색 제조강국
- 3대 추진방향, 9개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으로 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조기 창출할 계획

[표 1] K-GX 전략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3대 추진방향	9개 정책과제	주요 내용
신성장동력 K-GX	1. 산업 구조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	① (산업)多배출 5대 업종의 녹색 대전환, ② (수송) 무탄소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③ (에너지) '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④ (농림·해양) 자원 원료화 및 친환경 전환
	2. 녹색제조 3대 강국 도약	①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육성, ②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성장 촉진, ③ GX 밸류체인 구축
	3. 미래시장 조성 및 인력양성	① 탈탄소 제품 新시장 창출, ② GX 전략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③ GX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
모두의 K-GX	4. 지역성장 견인 GX	① 5극 3특 연계 지역특화 GX 산업 육성, ② 산단·클러스터의 전환기반 조성, ③ 국토·도시·공간의 GX 추진
	5. 상생과 포용의 GX	① 기후리스크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호, ② 대·중소 협업 등 중소·중견기업 전환 지원, ③ 전환산업·근로자 지원 강화
	6. 국민참여의 GX	① 국민참여 실천모델 발굴·확산, ② 국민 체감형 GX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K-GX	7. 전폭적 정부 지원	①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입 및 혁신사업 도입, ② 세제·규제개선 등을 통한 혁신환경 조성, ③ 탈탄소 혁신 기술개발의 전략적 지원
	8.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① 기후금융 대규모 공급 및 활성화, ②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③ 탄소감축 기술시장 활성화
	9. 제도적 기반 마련	① GX 법적근거 마련, ② 거버넌스 구축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6.10.7)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참고 재구성

II. 주요 내용

1. 추진방향1: 신성장동력 K-GX

- **(산업 구조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GX 핵심기술 개발·실증·상용화를 통해 산업 탈탄소 전환을 추진(아래 표 참고). 수송 전동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에너지AI 혁신을 통해 산업·수송·에너지 전반의 탄소배출을 감축
- **(녹색제조 3대 강국 도약)** 배터리·태양광·풍력·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 추진.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지원하고, GX 국내 공급망 및 순환자원 공급망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미래시장 조성 및 인력양성)** 저탄소 제품 인증과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탄소저감 제품의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를 유도. 글로벌 수출전략과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GX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표 2] 신성장동력 K-GX 5대 다배출 업종별 전환 목표

업종	구분	현황('25)	'30년	'35년
철강	수소환원제철 전환	R&D 개시	수소환원제철 30만톤급 실증기술 확보	250만톤급 스케일업(~'36) 및 상용화('37~)
	저탄소·고급강 생산 확대	고로·전기로 합탕용 및 고급 전기로강 생산기술 R&D 개시	합탕용·고급 전기로강 생산기술 확보	합탕용·고급 전기로강 360만톤 생산
	원·연료 대체	함수소가스(수소 성분 포함 가스)·대체철원 활용 R&D 및 상저취전로[1] R&D 진행중	함수소가스·대체철원 활용기술 확보 상저취전로 철스크랩 투입 비율 20%(300톤급 1기 가동)	고로 2기 함수소가스 취입, 대체철원 16만톤 활용, 상저취전로 철스크랩 투입 비율 25%(300톤급 1기 가동)
석유화학	연료 전환	전기로·무탄소 NCC 원천기술[2] 개발중	전기로·무탄소 NCC 원천기술 확보	전기로·무탄소 NCC 상용급 실증
	원료 대체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비율 0.5%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비율 3%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10%
시멘트	혼합시멘트	혼합시멘트 생산 비율 16%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10%	혼합시멘트 생산 비율 20%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15%	혼합시멘트 생산 비율 40%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15%
	연료 대체	폐합성수지 연료 대체율 35%	폐합성수지 연료 대체율 36%	폐합성수지 연료 대체율 53%
	원료 대체	非탄산염 원료 대체 1%	비탄산염 원료 대체 2%	비탄산염 원료 대체 5%
	공정 효율화	-	에너지효율 2% ↑ ('18년 대비)	에너지효율 연평균('31~'35) 2%↑
정유	바이오 원료	지속가능항공유(SAF)[3]혼합비율 0%	지속가능항공유 혼합비율 3~5%	지속가능항공유 혼합비율 7~10%
	폐자원 활용	폐플라스틱·폐타이어 1만톤 재활용	폐플라스틱·폐타이어 20만톤 재활용	폐플라스틱·폐타이어 50만톤 재활용
	공정 효율화	-	'31~'35년 에너지 효율 연평균 0.5% 개선	'31~'35년 에너지 효율 연평균 1% 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대체가스	低GWP[4] 대체가스 R&D 진행 중	低GWP 대체가스 도입 1%	低GWP 대체가스 도입 2%
	스크러버	공정가스 분해설비 저감효율 (반) 80%, (디) 80%	저감효율 (반) 83%, (디) 82% 고효율·차세대 스크러버[5] 개발	저감효율 (반) 88%, (디) 86% 고효율·차세대 스크러버 상용화

1) 상저취전로(Top and bottom blowing converter): 철강 제조 공정에서 전로(轉爐)의 상부와 하부 양쪽 모두에서 산소 또는 가스를 불어넣어 쇳물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설비(포스코)
2) 무탄소 NCC 기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 나프타 분해시설(Naphtha Cracking Center, NCC)에서 무탄소 수소·암모니아 연료를 적용해 탄소 배출을 Zero화하는 친환경 기술(전자신문)
3) 지속가능항공유(Sustaiable Aviation Fuel): 바이오매스,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해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연료(항공정보포털시스템)
4)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수치로 나타낸 값(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5) 스크러버(Scrubber, 유해가스 정화장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각종 오염물질을 주로 고온 열분해 방식으로 분해 및 정화하는 장치(시사저널e)

2. 추진방향2: 모두의 K-GX

-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녹색전환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여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상생 전략

[표 3] 모두의 K-GX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지역성장 견인 GX	• **(5극 3특 연계 지역특화 GX 산업 육성)**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전환 대표모델 발굴 및 GX 기술허브 육성. 나주 에너지특화도시 기술·투자·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제주 2035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 • **(산단·클러스터의 전환기반 조성)** 기존 산업단지의 에너지자립·무탄소전력·저탄소공정 전환 및 RE100 산단·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 녹색산업 육성과 기업의 탄소감축·에너지 전환 지원 • **(국토·도시·공간의 GX 추진)** 탄소감축을 고려한 국토·산림계획 수립 및 권역별 넷제로 도시 확산 제로에너지빌딩·그린리모델링·히트펌프·태양광 보급을 통한 도시·생활공간 에너지 전환
상생과 포용의 GX	• **(기후리스크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업 맞춤형 기후리스크 평가·정보 플랫폼 구축 및 취약 산업·공공인프라의 적응투자 지원. 기후보험·에너지 지원·고효율 냉난방 설비 확대를 통한 기후취약계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 **(대·중·소 협업 등 중소·중견기업 전환지원)** 중소기업 GX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및 탄소감축 설비·기술 도입 지원. 대·중·소 탄소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공동 전환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 • **(전환산업·근로자 지원 강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다배출 기업의 GX 지원체계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직업훈련·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근로자·지역 보호
국민참여 GX	• **(국민참여 실천모델 발굴·확산)** 기후시민 10가지 약속과 기후행동 기본계획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 녹색소비·교통 인센티브 및 탄소중립포인트 강화,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국민체감형 GX사업 확대)** 햇빛·바람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확산. 영농형 태양광 등 활용하여 지역 수익모델 창출

3. 추진방향3: 지속가능한 K-GX

-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 생태계와 혁신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행 기반 전략

(1) 전폭적 정부 지원

-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 및 혁신적 지원사업 도입)** '26~'35년 재정·기후금융 등 총 1,000조원 규모 투자 및 GX 성과관리 고도화. 공급망 협력·경매·전환금융 연계 등 혁신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
- **(세제·규제개선 등을 통한 혁신환경 조성)** 녹색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및 미래형 에너지 세제지원 확대-규제특례·샌드박스·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우수 GX 기업 인센티브 마련
- **(탈탄소 혁신 R&D 지원)** 17개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및 도전적 기술개발 목표·투자계획 마련-혁신기술 개발·실증·사업화 지원

(2)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 **(기후금융 대규모 공급 및 활성화)** 10년간 기후금융 790조원+a 공급 및 전환금융·녹색채권 지원 확대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배출권 가격 안정화·선물시장 도입 및 전기화·외부 감축사업 활성화
- **(탄소감축 기술시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및 고품질 탄소크레딧 인증·거래 기반 마련. 기후기술 투자·금융지원 확대

(3)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적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산업·중소기업 GX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한 전략 고도화·부처 협의·이행점검 체계 마련

[표 4] 지속가능한 K-GX 주요 정책수단

구분	주요 내용
재정	• 기후대응기금 지출 규모 확대('26년 2.6조원 → '27년안 7.6조원) • 녹색국채 발행 추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 수입기반 확보
기후금융	• 녹색·전환금융을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 • 전환금융 모범규준 마련(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 부합 여부 확인 후 적용), 전환채권·보증·융자 지원사업 신설 • 녹색채권 집중 지원트랙 신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 확대
세제·규제	•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장비 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신설 추진 •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신설, GX 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배출권 선물시장 마련 등 •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 고품질 탄소크레딧 최대 20만톤 정부 직접구매 추진
법·거버넌스	•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개정 추진 • 민관합동 K-GX 협의체(단장: 경제부총리)를 통한 이행점검

4.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프로젝트로,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로 구성. 정부는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 조기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표 5]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주요내용

분야	산업	참여 기업	주요 내용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태양광	한화큐셀	• 진천·음성 500MW급 탠덤셀 생산시설 구축, '28년 세계 최초 양산
		HD현대에너지솔루션	•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일체형 탠덤셀·모듈 상용화
	풍력	GS엔텍 등 7개사	• '30년까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생산기반 구축
		한화오션	• '28년까지 15MW급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 건조
	SMR	두산에너빌리티	• 창원에 연 20기 이상 생산 가능한 소형모듈원전(SMR)전용공장 구축
	전력기기	LS전선·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 '35년까지 변압기·전선 생산설비 확대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 '27년까지 오창에 소듐전지 기반 ESS 시범 생산라인 구축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철강	포스코홀딩스	•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생산설비·전기로 신설 • 정부와 100만t급 수전해시설·수소배관망 투자
	반도체	SK하이닉스	• '26년 말 용인 탈탄소전환센터 설립, 반도체 공정 탄소저감 기술 개발·실증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전기차	현대차그룹	• 울산·화성에 전기차·핵심부품 생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전기이륜차	우아한형제들	• '27년 광명·서울 배터리교환소 설치, '28~'30년 전국 확대
	선박	HD한국조선해양	• '30년까지 울산 연근해 전기추진선박·연료전지 연계 원양선 개발
	건설·농기계	대동, HD현대건설기계	• AI 기반 자율형 전동 농기계, 전동화 건설기계 출시
국민 주거공간의 GX	히트펌프	삼성전자	• '30년까지 공동주택 냉난방 히트펌프 누적 3만가구 보급
	주거단지	LG전자	• '29년까지 제주 에너지자립형 모듈러 주거단지 실증

[자료] 이유범, 「에너지·이동수단·주거 '녹색미래'로… 220조 기업투자 연결」, 파이낸셜뉴스, '26.10.7. 참고

III.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K-GX 전략은 규제대응 중심의 소규모·병렬식 지원에서 벗어나 재정·금융·세제·규제·R&D를 묶은 패키지형 성장전략으로, 탄소중립을 산업경쟁력·수출 정책과 통합하였음
- 다만 업종별 GX 로드맵, 전환금융 지원사업, 세제 법제화 등 핵심 후속조치가 ’26년 하반기~’27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 기준의 확정 속도와 내용이 전략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

[표 6]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 일정

시기	주요 일정
~'26년 하반기	• 전환금융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발표 • 녹색소비·교통 특화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 • 5대 업종별 GX 로드맵, 「탄소중립 기술혁신 종합 로드맵」,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K-ETS) 시장안정화 예비분[1]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 법 제정 추진 • 태양광 핵심 기자재 경제안보품목 지정, 정의로운 전환[1] 특구 지정 • 기후리스크 저감설비 투자 지원방안 마련, 민관합동 K-GX 협의체 구축
'27년 상반기	• 국내생산세액공제[2] 도입(1분기),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SMR 지정, 수소 세제지원 확대) • 녹색국채 세부방안 마련, 전환채권·보증·융자 및 녹색채권 지원사업 신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전기화 관련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 유망 기후테크 기업 선정
'27년 ~'28년	•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시행('27),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차등 도입('27) • 주요국 택소노미와 상호운용성 강화(’27.下) • 차세대 태양전지(탠덤셀) 양산('28), 녹색국채 최초 발행('28), 탄소중립전문기업 제도 도입('28)

1)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배출권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공급량을 조정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전기신문)
2) 국내생산세액공제: 내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한국무역협회)

2. 시사점

- **(기업)** 업종별 GX 로드맵이 전환금융 지원 기준과 연계될 예정으로, 다배출 업종 기업의 경우 전환계획의 로드맵 부합 여부가 전환금융 활용의 핵심 요건이 될 전망임.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조달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시장 창출 정책이 병행됨에 따라, 제품 단위 탄소배출 관리 역량이 판로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투자자)** 전환금융 취급 시 지원 대상 기업의 로드맵 부합 여부 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격성 심사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녹색국채 발행 및 전환채권 지원사업 신설로 투자 대상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자금 사용처 및 감축 성과 관련 정보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 **(정부)** 전환금융 심사와 기업 전환계획 기준이 되는 업종별 GX 로드맵에 설비별 전환 경로와 단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민관합동 K-GX 협의체의 이행점검 또한 지원실적과 함께 감축 성과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ESG Policy

2026년 11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 **2026년 2차 산업(농공)단지 태양광 · ESS 설치지원 사업 공고**	도내 기업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	**(지원대상)** 자가용 태양광(ESS) 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충남도 내 중소기업 **(총사업비)** 1,917.6백만원(도 1,033.8, 자부담 883.8) **(사업내용)** 기업 유휴부지(옥상, 주차장 등) 내 태양광 ESS 설비 설치지원 등 - ①사업 모델: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 ②사업 모델: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 태양광(ESS) 설비 설치지원 - ③ 사업 모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 **(신청자격)** ①, ③ 사업모델은 자가소비형 태양광(ESS)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해당 시군으로 신청을 하고, 시군은 충남도로 사업 신청 / ② 사업모델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주체인 시군에서 충남도로 사업 신청	11월 10일	충청남도 에너지과 041-635-3467, 각 시군청 담당부서
중소 중견 대 **2026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선정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선정기준)**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 충족 -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 - ② 안정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적정성 - ③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능력 등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26, 7665 / rjseh5122@korea.kr
중소 중견 대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①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위험성평가·안전교육 지원 통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모집규모)** 40개사 **(모집대상)** 경북도내 위치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원내용)**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지원, 현장중심 안전교육 제공, 기타 안전문화 확산 지원 **(지원방법)** 사업장 신청 →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 → 현장 안전진단·컨설팅 → 위험성평가 → 현장 안전교육·사후관리	11월 30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 · 기업지원팀 054-470-8562
중소 중견 대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국적선사의 친환경 쇄빙 및 내빙선 신조 지원을 통해 북극항로 활성화 시대를 대비하고,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 조선 상생기반 구축	**(지원규모)**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효과 등 실수요를 고려하여 '26년 예산(110억원)의 범위 내 (1척 이상) **(지원자격)** 북극항로 개척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신조하는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지원대상)**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해운법」 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12월 9일	한국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북극항로팀 051-795-1674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북극항로정책과 051-773-6325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ESG 공시 리스크를 넘어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세미나」 개최 ('26.11.10)

ESG 공시 리스크를 넘어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정보 공시를 넘어 검증과 실행으로

참가 신청

2026. 11. 10.(화) 14:00~16:30

대신파이낸스센터 5F 대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본 세미나는 공시 정보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검증(PR·IR), 그리고 신뢰받는 전환계획과 실질적 가치 제고 공시 방안을 공유합니다.
공개된 ESG 정보가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그린워싱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고, 공시와 투자자 활용 사이의 간극을 좁힙니다.
나아가 시장과 조직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구분	주요 내용	연사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참석자 등록, 네트워킹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세미나 개요 소개 및 환영사	
14:10 ~ 14:40	세션1	**투명성의 역설(Paradox of Transparency)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14:40 ~ 15:10	세션2	**기업이 공시하는 ESG와 투자자가 실제로 보는 ESG는 같은가**	**한국ESG연구소** 정우영 본부장
15:10 ~ 15:25	Break Time	휴식 및 네트워크	
15:25 ~ 15:55	세션3	**ESG 전환을 위한 기업 전략**	**대신경제연구소** 정승태 센터장
15:55 ~ 16:15	세션4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전략**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 센터장
16:15 ~ 16:30	Q&A	사전 질의 및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	모든 발제자

※ 대기업·중견기업·금융기관 실무자 대상 행사로 컨설팅사(자문사) 참석은 제한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가 확정 여부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처
soeun.park@daishin.com

참가신청 바로가기 >

주최 Daishin 경제연구소 IMPACT ON